

한국의 가족변화에 따른 정책

최근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가족변화 역시 세대와 젠더,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

이러한 분석결과는 고령화와 소득의 양극화가 가족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대 간, 소득계층 간, 젠더 간 변화 속도의 차이는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가족변화 대응 가족정책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한국의 가족변화에 따른 정책

1) 양성평등 가족정책

2015년 7월「양성평등기본법」시행에 따라 가족정책 역시 양성평등 가족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양성평등적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노동권과 부모권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모성권과 함께 부성권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

2) 일가정양립 지원 가족정책

맞벌이가족이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자리 잡아 나가면서 가족정책의 중요한 목표는 자녀양육과 부모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15년 이상 동안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에 성공한 국가들은 최고의 출산율과 최저의 빈곤율, 높은 여성 노동참가율이라는 공통의 결과.

한국의 가족변화에 따른 가족정책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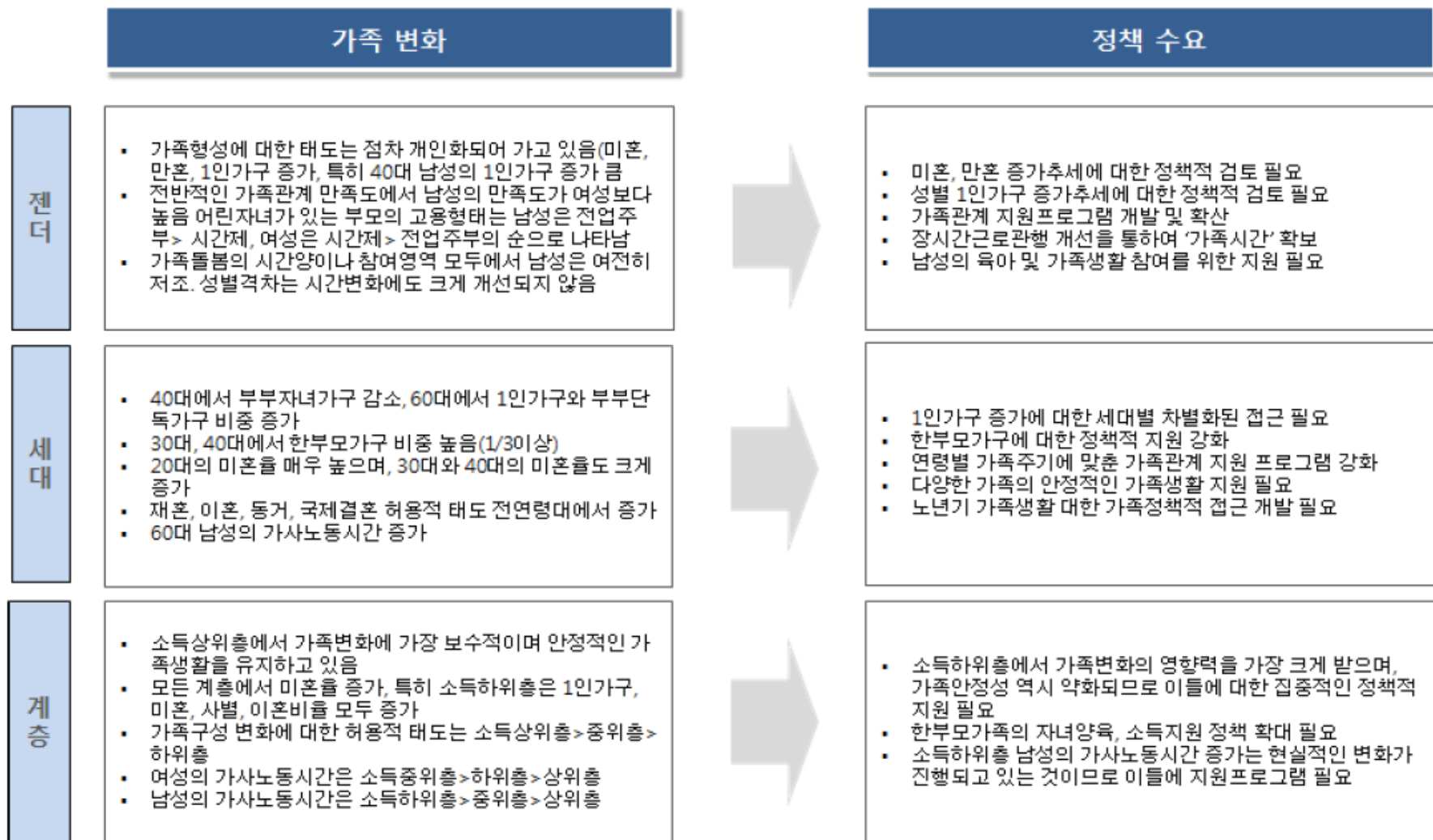
3) 양성평등 가족정책

가족의 형태적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가족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것.

4) 대안가족에 대한 개방적 태도

가족형성 및 유지, 가족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태도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형성에 대한 태도는 급격히 개인화되어 가고 있어서 1인가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가족과 관련한 가치관에 있어서도 재혼, 이혼, 국제결혼, 동거등에 대한 태도도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의 가족변화에 따른 정책



[그림 V-1] 젠더 · 세대 · 계층 관점에서 본 가족변화와 정책수요